

‘두려워 말고 내면의 본질적 외침’ 기록해야



글_ 하성욱 서울 오산고 국어교사

글을 쓰는 일은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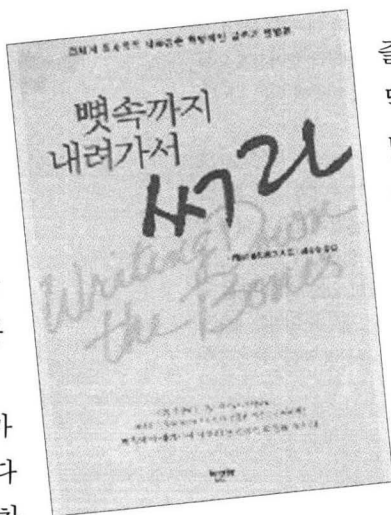
혹자는 글을 쓰는 일을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에 비유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글쓰기의 어려움을 일컫는 말인데,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득 품는 것 같아 반감이 든다. 과연 이런 말을 인용해서까지 글을 쓰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가?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글을 쓰는 일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당신은 진정 글을 쓰면서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 보았냐고. 아니 뼈를 깎는 방법은 알고나 있냐고. 아마 열에 아홉은 뼈를 깎기는커녕 뼈를 깎을 연장도 준비해 놓지 않고, 단순히 글쓰기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논술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논술문 쓰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실제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있을 뿐,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논술은 논리적 글쓰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논술은 어떤 논제가 나오면 어떤 근거를 들면 된다는 식의 주입식 교육에 그치고 있다. 학생의 비판적, 논리적 사고 배양은 없어지고 단순 암기만 부각되는 현실에서 논술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글을 쓰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입시 논술을 써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

금부터 생각을 바꾸어 보자. 소설가 전상국이 이야기하였듯이 글을 쓰는 고통은 즐거움으로 들어가기 위한 순간일 뿐이다. 글쓰기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한번 피를 흘려보고, 뼈를 깎는 고통을 맛본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일은 오히려 고통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나탈리 골드버그 지음 | 권진욱 옮김 | 한문화 | 271쪽 | 값1,000원

눈물을 넘어 진실을 보는 안목고통의 즐거움이라는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통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왜 글을 써야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논술에서는 논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곧 글을 쓰는 이유가 될 것이다.

대학별로 논제를 묻는 방식과 요구하는 내용이 각각양색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논제에서 이미 고정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제를 파악할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눈물을

넘어 진실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를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분석해주지 않으면 논술과 같은 입시에서는 아무리 구조적으로 잘 쓴 글이라 할지라도 낙방의 패배를 맛볼 수 밖에 없다. 글쓰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논제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면화된 경험을 이용하며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왕 뼈를 깎을 태면 즐기면서 깎아라!

논제의 본질을 파악하였다면, 제시문을 분석한다. 제시문은 인문, 과학, 철학, 종교,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학생의 관심에 따라 그 이해도는 천차만별이다. 논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시문 분석에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해서는 안된다. 이왕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즐기면서 깎아야 하지 않겠는가?

뼈를 즐기면서 깎기 위해서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시문 파악력을 키우는 왕도는 다독이 아니라 정독이다.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글을 읽어내는 능력은 단순히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논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내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의 분위기와 글쓴이의 태도 및 성격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해내려면 제시문 한편을 읽어도 꼼꼼히 뜯어가며 깊이 있게 읽는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을 정독할 때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읽지 말고 글쓴이와 싸우기 위해 읽어야 한다. 글의 노예가 아닌 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뺏속까지 내려가 자기 마음의 본질적인 외침을 적어 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한 확신을 키워 내면의 목소리를 기록해보라는 것이다. 어떠한 글에 작가의 진실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혹자는 논리적인 글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데, 작가의 진실을 담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작가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체득한 내면화된 배경지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슬비에 옷 젖듯 자기도 모르는 동안 글에 은은히 묻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본질적인 외침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자연히 글에 실리게 마련이다. 억지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글에 연결시키려 하지 않아도 내면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논거로 발전하기 마련이고, 결국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연암 박지원은 이러한 본질적 외침을 글에 나타내는

것을 군사에 비유하였다. 박지원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관을 격파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반란을 일으키면서 글을 썼으며, 박지원의 글 그 자체가 반란이었다. 반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장수를 내세워 사졸을 지휘하고, 필요한 전술을 동원해서 싸워야 하듯이, 글을 쓰는 것도 본질적이고도 창의적인 외침을 내세워 글을 써내려 가야 한다. 우리 자신이 박지원은 될 수 없더라도 박지원을 닮아 자신만의 외침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뺏속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고통 속의 보석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결국 아름다운 보석 하나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내기보다 자신이 쓴 글 중에서 좋은 부분은 밑줄을 쳐보아라. 이것들을 글쓰기 주제 목록에 적어 넣으면 다음 번 다시 글을 쓸 때 그 중 하나를 잡아서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밑줄을 쳐둔 글은 그 문장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언젠가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장을 쓰게 된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던 별개의 부분들이 뭉쳐져서 더 큰 보석이 될 수 있다.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

나탈리 골드버그가 지은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책은 논술을 대비하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 인생의 모든 모험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안내서가 된다. 이 책의 작자는 삶과 글쓰기의 진실에 대해 때로는 용맹한 전사가 되어, 때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진 현자가 되어 메시지를 전한다. 70여가지의 소주제를 통해 글쓰기의 전반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어 글쓰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한다. 글쓰기를 두려워 말라. 글쓰기에서 1+1의 정답은 2가 아니다. 때로는 3, 4도 답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이 원하는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정답이 됨을 잊지 말길 바란다. *******